

## 마침내 《문학과지성》을 창간하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3

김병익 | 문학평론가

“1970년 첫선을 보인 《문학과지성》은 재수록 제도로 문단 안팎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 제도는 지난 석달 동안 발표된 작품들을 선정해서 재수록하면서 그에 대한 비평적 리뷰를 가하는 방식이었다. 누구보다 이 제도를 반긴 것은 시인과 소설가 자신들이었다.

지금처럼 잡지와 비평문이 활발한 시절도 그렇지만 30년 전의 그때는 더욱,

자기 작품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그처럼 열정과 기대를 들었던 《문학과지성》의 첫호가 간행됐다. 붉은 주홍색 태양을 가운데로 넘실넘실 햇발들이 퍼져나가는, 김승옥이 도안한 표지의 창간호를 일조각에서 맞으며 우리는 감동했다. 김 현의 표현대로 ‘뜨끈뜨끈한’ 초간본을 들고 저녁을 먹은 후 종로 1가의 한 사진관에 들어가 기념촬영을 했다. 이곳저곳 여러 자리에 자주 보인 이 사진은 서른 안팎의 아직은 설익은 표정에 젊은 의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30여년이 지난 이제, 그 사진에 찍힌 6명 가운데 김 현과 황인철, 그리고 역시 나와 고등학교 동기생이며 검사였던 성민경 등 세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고 말았다.

###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필자로 참여해

1966년에 창간된 《창작과비평》에 이어 1970년대의 ‘계간지 시대’를 여는 데 한몫 하게 되는 《문학과지성》은 이렇게 1970년 가을호로 첫선을 보였다. 발행은 일조각, 발행인은 한만년, 편집인은 황인철, 인쇄인은 대한고교서주식회사의 김광수, 신국판 212면 정가 220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후에 이중환이 지적해줘서 깨달았지만, 정기간행물로 허가된 ‘마-185호’의 등록일자는 9월 11일이고 발행일자는 9월 5일로 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발행됐다는 것인데, 이런 흥미로운 실수는 우리가 이 잡지의

창간을 얼마나 서둘렀던가를 감회 어리게 회상 시켜주는 것이다.

“이 시대의 병폐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식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가?”로 시작되는 ‘창간호를 내면서’는 김 현이 썼는데, 이 유명한 서문을 통해서 그는 우리 시대의 근원적 병원(病原)을 패배주의와 사머니즘으로 지적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정신의 확대의 여러 징후들을 정확하게 소개 제시”함으로써 폐쇄적인 우리 문화 풍토에 어떤 자극을 줘 보편적인 인식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것과 “한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제반 분야에 관한 탐구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겠다는, 그러나 ‘조심스럽게’란 말에서 비추듯 “한국 우위주의라는 패배주의의 가면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취지가 그후 어느 만큼 성과가 있었는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우리가 각별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었다.

가령 우리가 자유와 지성이란 덕목에 유다른 관심을 기울이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평이론을 앞서 수용하고 사르트르 이후의 프랑크 지성에 자주 지면을 할애한 것, 서양사와 한국사의 학자들 글을 계속 게재하면서 그즈음

적극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한국학의 성과들을 거둬들이려 한 것, 산업 사회를 해부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 것 등등이 그렇다. 외국의 문학이론도 이때 활발하게 소개됐고 대중사회론에서 민족문학론에 이르기까지 지적 관심사는 부챗살처럼 넓게 퍼져 있었다. 되짚어보니, 그 필자들은 당시 우리 인문 사회과학계의 가장 유력하면서도 진지한 인문주의적 지식인들이 거의 망라돼 있었고 연배도 50대 대선배에서 우리 또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잡지에 따른 유파적 파벌이 강하지 않았기에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필자로 동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명단은 학계와 지식사회 전반에 걸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학과지성》이 문학지고 편집동인들이 모두 비평가였기에 문학 쪽이 가장 활기있게 마련이었다. 최인훈, 이청준, 홍성원, 박태순, 최인호, 박상룡, 조해일, 조선작, 김원일, 조세희 등의 소설가, 그리고 황동규, 정현중, 최하림, 이성부 등의 시인 같은 기성의 문학인들 작품만이 아니라, 《창작과비평》과 마찬가지로 신인들의 투고작을 심사해서 곧바로 게재하기도 했는데 소설 쪽에서는 이인성 외에는 만족할 만한 신인이 별로 없었지만 시 쪽으로는 장영수, 김광규, 문충성, 김혜순, 이성부, 황지우, 박남철, 최승자 등 1980년대를 주도할 신인들을 대거 배출했다.

### 재수록으로 문단의 이목 끌어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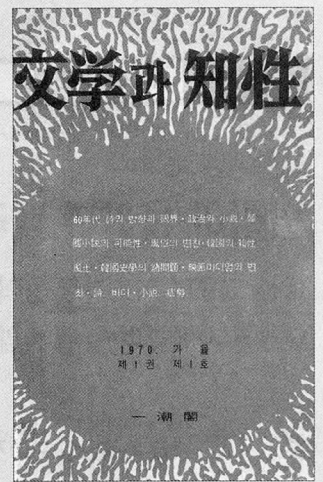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문학평론 분야에 주력해온 문지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이른바 ‘재수록’ 제도였다. 김 현의 기발한 편집자적 아이디어로 창간호부터 시작된 이 재수록 제도는 지난 석달 동안 발표된 작품들을 선정해 재수록하면서 그에 대한 비평적 리뷰를 가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첫호에 지난 6개월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첫 재수록 작품들은 홍성원, 박순녀, 최인호, 최인훈의 소설들과 정현중, 윤상규, 이성부, 조태일, 김준

대의 시들이었고 리뷰는 김현승씨가 재수록 시를 중심으로 당시의 시단 전반에 대해, 김치수는 김문수와 홍성원에 대해 썼고 나는 박순녀씨의 〈어떤 파리〉를 중심으로 '정치와 소설'의 관계를 맡았다. 이런 식으로 매호 재수록 작품들이 동인들의 토론으로 결정되고 그 작가에게 동의를 구하며 비평해줄 필자에게 청탁, 게재함으로써 이 제도는 호가 갈수록 인기를 모으게 됐다.

독자들은 비록 잡지가 많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정명환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것저것 다 보는 수고를 덜고, 좋다는 평을 얻는 작품만 읽게 되니 우선 '경제적'이었다. 그리고 월간지에서 놓친 '좋은 글'을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기회를 그것은 주고 있었다. 유신 정권이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근원적 비판을 가한 길현모 교수의 글 〈민족과 문화〉도 재수록으로 더 많은 독자를 얻은 경우였다. 길교수는 내게 "내 글을 읽었다는 사람 대부분이 그 글이 당초 발표된 월간 종합지가 아니라 《문학과지성》에서 읽었다고 하더라"고 말하면서 그 재수록의 효과에 대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재수록을 반긴 것은 시인과 소설가 자신들이었다. 지금까지 잡지와 비평문이 활발한 시절도 그렇지만 30년 전의 그때는 더욱, 자기 작품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서정주, 박목월, 김춘수, 송옥, 박재삼, 김종삼, 황순원, 선우 휘, 서기원, 이호철, 박완서 등 대가와 선배들도 이 재수록과 리뷰를 무척 반가워하고 후배들의 '격려'를 기꺼워하기도 했지만 우리 연배나 후배 등 신진급들은 비로소 문단에 인정을 받고 자신의 작품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생각하는 듯했다. 이 재수록 때문에 동인들이 비로소 인사를 나누고 평생의 문우로 사귀게 된 사람들이 조세희, 김주영, 김원일, 오규원들이었다. 재수록 작품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동인이 쓰기도 하고 청탁을 해서 외부 기고를 받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든 자신의 작품을 재수록하게 된 작가는 문지로부터, 그것도 네 명의 비평가로부터 동시에 인정된다는 반가움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오정희의 경우는 지금도 그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곤 한다. 김 현이 어떤 작가가 자기 작품을 재수록해줬으면 한다는 소망을 말하더라고 내게 전했다. 나는 그 사람 것을 재수록하느니 '차라리 오정희를' 하겠다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오정희의 작품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채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여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올려 그 이름을 끌어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잡지에 오정희 이름의 작품이 게재된 것을 보고, 내가 접해보지도 않은 작가 이름을 거명한 책임을 느끼고는 별 기대감 없이 읽기 시작했다. 아마 〈적요〉였을 것이다. 몇 줄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치밀한 묘사와 집요한 문체, 깊은 정서로 나를 움켜잡는 작가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난 김 현에게



동인들의 열정이 가득 실린 《문학과지성》 창간호가 1970년 가을호로 첫선을 보였다. 붉은 주홍색 태양을 가운데로 햇발들이 퍼져나가는 표지장정은 소설가 김승옥의 작품이다.

오정희의 신원과 그녀의 기왕의 작품에 대한 소견을 물었다. 그리고 재수록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때서야 김 현은 서라벌예대에 시간강사로 나가면서 그녀의 작품을 일찍부터 주목해왔다면 동의했다. 나와 오정희와는 그래서 처음 만나 어색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내 회갑 때 나온 《김병익 깊이읽기》(문학과지성사)에 쓴 오정희의 회고담은 바로 그때의 만남을 빌미로 한 것이다.

### 서로에 대한 배려로 동인의식 굳혀가

재수록 제도는 정작 문지 동인들에게 현장비평 작업으로서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됐다. 우리는 작품을 재수록하면서 그 선정 이유를 서문과 리뷰를 통해 밝히면서 우리가 좋은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갖고 있는 문학적, 현실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표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인 모두, 또는 동인 각자의 문학론을 구체적인 작품과 작가를 통해 전개한 것이고 그것이 편집동인이라는 제한된 체제에도 불구하고 폭넓고 다양한 시인, 소설가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론과 논쟁에서는 《창작과비평》에 밀리면서도 그것에 대응할 실제 작품들 쪽으로는 《문학과지성》이 더 활발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재수록 제도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문학과지성》의 기획과 재수록 작품 선정, 필자들과의 만남을 대부분 동아일보사 건너편의 '비봉' 다방에서 했다. 차를 마시며 메모지에 적으면서 의견을 모으고 각자 청탁을 분담하고, 다음 만남에서는 그 결과를 체크하고 혹은 투고된 원고를 돌려 읽은 소감을 나누곤 했다. 그렇게 빈번하게 만나고 우정과 동료애를 더불어 키워오면서도 서로에 대해 은근한 배려를 늦추지 않았기에 어떤 제안이든 안색만 보고도 그 반응을 짐작하고 목소리의 결을 듣고도 상대의 내심을 눈치챌 정도였다. 그러면 스스로 제안을 철회하기도 하고 "반대는 안하겠다"는 소극적 동의로 합의를 보기도 했다. 그것이, 동인들간 제각각의 개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문학적 논리를 지켜나가면서도 이른바 '4K'의 합성(合聲)으로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